

# 시각, 청각, 지적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와의 관계 : 자녀와의 의사소통 매개효과

전 선 영<sup>+</sup>

(용인대학교)

이 성 규<sup>++</sup>

(서울시립대학교)

정 은 주

(서울여자대학교)

김 정 희

(한국장애인개발원)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 청각, 지적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를 살피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이들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효과적인 부모역할 수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서울지역 장애인복지관과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해 총 13개 기관에 300부를 배포하였고, 청각장애 여성은 자기기입방식으로, 시각과 지적장애 여성들은 조사원이 읽어주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210부를 회수하여 최종분석에는 187부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양육부담은 부모역할만족도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양육부담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부모역할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여성장애인, 자녀양육부담, 부모역할만족도, 자녀와의 의사소통

+ 교신저자

++ 제1저자

## 1. 서론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가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그만큼 일상생활과 자녀양육의 부담과 스트레스는 과중하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담은 새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로서 부모 개인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가족이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대물림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보육과 관련하여 여성장애인의 어머니 됨을 지원하는 사회적 논의는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모역할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의 정도는 부모 개인의 생활양식과 생활만족도를 결정하게 하는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 역할에 만족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동기유발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부모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회피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취해 자녀의 행동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현온강, 1994; 이윤정·조궁호, 2002). 이렇게 부모는 부모의 역할수행을 통해 자녀의 신체적 성장, 성격 발달, 가치관 형성, 인지발달 등과 같은 제 발달영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김정희 외, 2011). 그러나 시각이나 청각,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경우 장애 자체의 어려움뿐 아니라 자녀출산과 양육 등 새로운 인생 국면을 경험하면서 남성장애인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벽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결혼이라는 기본적인 삶의 선택부터 제한적으로 시작되며, 이어진 임신·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모성의 제한은 물론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의 부족 등으로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비장애 부모에게 부모역할만족도가 중요하듯이 장애여성 부모에게도 부모역할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통해 일상적인 긴장과 갈등요소가 경감되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나아가서 가족체계의 긍정적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Guidubaldi and Clerminshaw, 1985). 따라서 부모역할 만족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자녀가 커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기 어렵다거나 자녀의 말을 알아듣고 표현하고 대화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청각, 지적장애인들은 일상적인 양육행위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조차 부담의 연속이자 도전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은 장애로 인한 본인 자신의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건강악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훨씬 크게 다가온다. 동시에 장애와 양육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비장애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부모역할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박화운 외, 2007).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오히려 가족 내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역양육의 관계도 형

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어머니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양육부담과 부모역할 상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다행히 최근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에 대한 정부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의무화 되었으나, 여성장애인의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지원 정도가 여전히 부족하고 관련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성장애인 관련 연구들은 주로 젠더 관점에서 차별의 희생자로, 또 장애로 인한 역기능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여성의 당연한 권리인 모성 기반의 양육을 연구주체로 한 논문은 제한적이다(김소진·양정빈, 2011; 이갑숙·손신현, 2008; 임은자·박애선, 2012; 최복천 외, 2009). 또한 여성장애인 관련 국내 연구들도 모성 정체성과 부모역할수행이라는 인식적 수준을 통합하기 보다는 주로 여성장애인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양육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정진, 2000; 이갑숙·손신현, 2008; 황보영, 2003; 홍승아 외, 2007). 또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양육부담 관련 국내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부양부담이 부모역할만족도와 관계가 있으며(김정진, 2000; 신숙재·정문자, 1998; 황보영, 2003; 홍승아 외, 2007; Oyserman 외, 2002), 이들의 관계는 부부나 자녀 등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부모역할만족도에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오인혜·정은희, 2011; 임은자·박애선, 2012; Quitter 외, 1990)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여러 장애 가운데 청각이나 시각,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자녀양육 관련 연구와 정책이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이들 장애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있다. 특히 지적이나 시각장애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 시 누군가의 돌봄을 받드시 필요로 하는바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적이고 병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시각이나 청각,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를 매개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가족 내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비공식적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심리적 안정 및 부모로서의 역할수행 만족감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대상에서 후순위에 머물러 있는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장애와 지적장애 여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다차원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부모역할만족도

성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은 것이 부모역할만족도이다(Guidubaldi and Cleminshaw, 1985). 부모역할은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으로(Becker, 1964), 현온강과 조복희(1994)는 부모역할만족도를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감으로 보았고, Ainsworth(1989)는 부모역할을 자녀의 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였다. 부모역할에 대해 위기의 관점에서 벗어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한 Russell(1974)은 부모역할에 '만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가 되는 것이 인간 발달단계의 정상적인 하나의 국면이자 위기가 되고 이것이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있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일상적 긴장과 갈등요소를 경감시켜 성인이 지각하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모-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체계의 긍정적인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문혁준, 2001). 따라서 부모역할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은 부모 개인 또는 부부관계에 상당한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힘을 갖게 하므로 부모역할만족도의 증진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역할의 책임의식은 어머니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인지발달, 사회성, 정서발달과 규범, 가치관, 가족생활로 나타나고 있다(박성옥·강영자, 1997).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경우, 본인 자신의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장애자녀 또는 비장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등 심리적인 두려움과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 여성들이 겪는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훨씬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어 부모역할 만족도가 감소하기도 한다(박화윤 외, 2002). 이에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이 모성역할의 기회를 박탈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홍승아·이영미, 2009), 여성장애인 가족의 자녀에 대한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상황들을 점검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 양육부담

자녀의 출산, 학교입학과 같이 중요한 생활사건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Menaghan, 1983).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양육부담과 양육 스트레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자의 정신적, 심리적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노지영·황혜신, 2012; 송연숙·김영주, 2008; Baker et al, 2003; Hassall et al, 2005), 양육부담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가 느끼는 양육기술, 대리양육자 등 양육자체와 관련된 부분, 관련정보나 신체적, 경제적 부담에 좀 더 비중을 두는 편이다(권경숙, 2008; 엄미선·전동일, 2006; 이지원, 2003; 전우경, 2001). 한편 Abidin(1995)은 부모역할 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부담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으며, 고성혜(1984)는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을 자녀의 장애 및 올바른 양육에 대한 불안감,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 및 우울성향, 부모의 죄책감 및 역량, 자녀양육에 따른 신체적 피로도 및 구속감, 가족 간 불화, 자녀로부터 받는 심리적 상처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부담을 정신적·심리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양육에 대한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인 부분에서 양육자가 느끼는 포괄적 어려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Mash와 Jhonston(1990)의 연구처럼 양육부담을 느끼는 어머니는 자아이미지가 부정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낮을 뿐 아니라 우울, 불안, 분노, 고립을 경험하게 되므로, 자녀양육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은 양육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자녀에게 부정적인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육부담의 경감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유영준 외(2011)의 연구에서는 본인 자신의 장애와 건강악화의 문제와 심리적 불안정, 자녀양육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돌봄부담, 교육과 재활치료에 대한 부담, 과도한 양육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아동의 장애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사회활동의 제약 및 가족 간의 갈등 등 장애 당사자는 물론 가족구성원 모두가 심각할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 죄책감, 신체적 고통, 가족기능의 정상화 어려움 등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가족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담으로 경제적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며 특히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변용찬 외, 2009).

한편 장애유형별과 자녀발달에 따라 여성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부담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장애유형별 자녀양육 부담으로 양숙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외부의 위협에 노출이 되고 자녀의 상태와 성장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고 하였다. 홍승아 외(2007)에 의하면 지적장애, 청각장애 여성의 경우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중증장애여성의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녀의 발달시기별로 경험하는 양육부담을 살펴보면, 영유아기와 아동기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들은 부모역할을 잘하지 못하며 외출하기, 비깅놀이가 어렵고 가까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아동기에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심리적 위축문제, 다른 부모들과의 정보공유나 부모모임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홍승아, 2009; 양숙미 외, 2010).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만족감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양육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을 통해 보람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요인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 3) 자녀와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서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 생각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이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과 목표를 알게 되며 사랑과 존경을 표하게 되는 것으로, 언어적·정서적 소통을 의미한다(Hawkins et al., 1980; 유주희·이정우, 1993).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에 마음의 연결을 이루며, 상대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이미혜, 2004). 부모와 자녀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유형은 어느 한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함께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는 사회화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도 줄여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를 이룰 수 있다(김미애, 1997). 그러나 일부 장애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은 다른 가족원을 통한 간접적인 의사소통 전달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잘못 해석되거나 왜곡되기 쉬운 문제가 있어 이로 인한 가족기능 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성원 상호간의 감정, 생각, 사상, 태도 등을 전달해주고 상호활동을 조장하며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가족 상호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증진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 부모와 자녀 간의 지원은 교육지원, 지역 및 사회지원, 가족관계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가족중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될 수 있으나(오혜경, 2002; 유영준 외, 2011), 그 중에서도 홍승아 외(2007)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과 자조모임을 조직할 수 있는 기반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녀와의 의사소통 유형도 개방적 의사소통일 때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영미 외, 2005),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살과 폭력과 같은 위험행동의 공통된 보호요인임이 거론되면서(박현숙, 2008) 많은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자녀의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임주희·최연실, 2006), 자녀의 정신건강 유지·증진에도 기여하며(박현숙·구현영, 2009),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순형·길애진, 1999). 즉 자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삶에 대한 태도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 4)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 (1)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양육부담이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김정진, 2000; 신숙재·정문자, 1998; 황보영, 2003; 홍승아 외, 2007; Oyserman 외, 2002). 홍승아 외(2007)의 연구에서는 양육부담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양육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정도가 심할수록, 즉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일수록 부모역할만족감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숙재와 정문자(1998)의 연구는 자녀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부모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정진(2000)의 연구에서도 여성정신장애인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로서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황보영(2003)의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yserman 외(2002)는 양육스트레스는 실제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병적 증상이 적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이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도움이 필요 정도가 높고 장애가 심할수록 양육부담이 크고,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는 부모역할수행 정도와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양육부담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관계

양육부담과 의사소통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양육부담과 의사소통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김용석·박명숙, 2000; 오영희, 1993; 이영준, 2003; 이현지·김우호, 2011; Schrodt, 2009). 이현지와 김우호(2011)는 장애청소년 부모의 양육부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소통이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부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소임을 확인하였고, 김용석과 박명숙(2000)은 양육부담이 높은 부모는 자녀와의 양육 안정감과 친밀성의 질 저하를 경험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질이나 친밀감은 대부분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보편적으로 가족성원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할 경우 올바른 훈육과 지도가 어려우며 가족만족도가 낮아져 부모와 자녀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으나(이영준, 2003; Schrodt, 2009), 장애부모의 경우 특히 청각장애인 부모들은 건청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하는 영역에서 일반 부모들과는 다른 양육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부담으로 인하여,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들의 자녀는 자연적으로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오영희, 1993). 따라서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는 부모와의 상호 공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확립하여 자신감 및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증진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3)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부모역할만족도 관련 연구들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오인혜·정은희, 2011; 임은자·박애선, 2012; Quitter 외, 1990). 즉, 오인혜와 정은희(2011)의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시 원활한 수화 소통을 이루지 못할 때 부모님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곤란을 겪고 부모역할수행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은자와 박애선(2012)은 지체장애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 인정 등의 긍정적 지원의 정도가 자녀양육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Quitter 외(1990)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자녀양육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Zemencuk과 Rogasch(1995)도 정신장애로 인한 특성보다 낮은 사회적 지지가 여성정신장애인의 양육역할 수행과 만족에 더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 내 가장 가까운 비공식적 사회적지지 자원 중의 하나인 자녀와 함께하는 의사소통의 정도는 부모역할수행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를 매개하는지를 파악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한 검증은 각 요인별 경로계수 및 모형 적합도 분석에 기초하며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양육부담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양육부담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양육부담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를 매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각, 청각,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관련한 기존연구 및 정책마련 등에서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자녀양육의 부담이 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 시 누군가의 돌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바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애특성 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감각 및 지적장애 여성을 표본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특히 지적장애 여성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관계형성이 되지 않으면 마주앉아 있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조사대상 확보를 위해 서울지역 장애인복지관과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협조를 의뢰하여 일정부분 사회성이 확보된 여성들을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조사 가능한 기관 13곳을 선정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면접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특히 한글해독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여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사용에 신중을 기했다. 본 조사대상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장애유형만큼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기입식 설문작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진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서 응답자와 라포형성을 한 후 질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 배포는 의뢰기관의 시각, 청각, 지적여성장애인 명단과약



후 가능한 설문지 회수 200명을 기준으로 대상인원의 1.5배(300명)를 배포하였고, 최종적으로 210명을 회수하였으며, 응답의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내용을 포함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시각장애 83명, 청각장애 64명, 지적장애 40명 등 총 187명의 조사내용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변수측정

#### (1) 부모역할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척도는 임은자(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역할만족도(Parent Satisfaction Scale: SS)는 Duke 외(1997)가 개발한 척도이며, 이를 임은자(2011)가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가 시각, 청각, 지적장애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긴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는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임은자(2011)의 11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역할만족도 척도의 구성은 '자녀를 갖는 것은 모든 희생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는 내게 특별한 기쁨을 주는 원천이다', '나는 자녀를 키우는 일이 내 인생의 주된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역할만족도의 신뢰도는 임은자(201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3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7로 문항들의 신뢰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양육부담

본 연구에서 양육부담 척도는 박길진(2007)의 양육부담감 척도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양육부담척도는 오가실(1997)과 남연희(2001)이 사용한 척도를 박길진이 총 8문항으로 구성한 척도이다. 양육부담척도의 내용은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양육부담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부담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양육부담의 신뢰도는 박길진(200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 이상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66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녀와의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의 자녀와의 의사소통 척도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용복 외, 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척도 3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자녀와 이야기할 때 생각이 달라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 준다', '자녀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서로 의논한다', '자녀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의 3개 문항이며 응답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의사소통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40으로 조사되었다.

#### 4) 각 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동일방법편의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원자료를 기반으로 2단계 접근법에 입각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22개의 관측변수와 3개의 잠재변수로 구성된 측정모형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정수준 이상의 모형적합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정지수와 표준요인적재치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고, 산출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IFI, TLI, CFI와 모형의 간명성까지도 고려하는 RMSEA 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chi^2=387.096$ ,  $df=206$ ,  $p=.000$ ,  $TLI=.907$ ,  $CFI=.922$ ,  $RMSEA=.079$ 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1>에서 보듯이 평균분산추출치(AVE), Cronbach's  $\alpha$ , 개별항목신뢰도, 각 잠재변수와 해당 관측변수들 간 경로계수들의 유의성 및 표준요인적재치들을 검토해볼 때,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수렴타당도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1>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신뢰도와 수렴타당도 검증)

잠재변인	측정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t.	개별문항 신뢰도	AVE ( $\alpha$ )
양육부담	NB1(육체적 부담1)	1.000	0.878			0.825	.501 (.866)
	NB2(육체적 부담2)	1.045	0.802	.090	11.618***	0.811	
	NB3(정서적 부담1)	.883	0.766	.094	9.388***	0.675	
	NB4(정서적 부담2)	.904	0.744	.102	8.836***	0.683	
	NB5(사회적부담 1)	.936	0.74	.118	7.965***	0.664	
	NB6(사회적부담 2)	.710	0.621	.117	6.070***	0.52	
	NB7(경제적 부담1)	.924	0.818	.106	8.713***	0.549	
	NB8(경제적 부담2)	.751	0.783	.104	7.194***	0.838	
의사소통	C1(귀기울여 들어줌)	1.000	0.7			0.754	.642 (.840)
	C2(서로 의논)	1.427	0.903	.169	8.425***	0.85	
	C3(서로 이해)	.987	0.777	.116	8.532***	0.798	
부모역할만족	PS1(기꺼이 희생 감수)	1.000	0.634			.937	.603 (.937)
	PS2(자녀는 기쁨의 원천)	1.053	0.744	.127	8.316***	0.581	
	PS3(부모로서 행복)	1.408	0.809	.184	7.648***	0.711	

PS4(자녀양육이 주된 목표)	1.450	0.748	.185	7.853***	0.756
PS5(자녀양육은 신이 낳)	1.619	0.802	.221	7.327***	0.679
PS6(자녀와 있으려 노력)	1.460	0.809	.204	7.161***	0.779
PS7(부모 되기는 즐거운 일)	1.636	0.824	.232	7.061***	0.771
PS8(자녀생각 즐거움)	1.496	0.86	.187	8.016***	0.764
PS9(아이에 말하기 좋아함)	1.406	0.792	.198	7.086***	0.838
PS10(보살필자녀가 있어 즐거움)	1.547	0.841	.209	7.393***	0.818
PS11(자녀와 보내는 시간 좋음)	1.538	0.899	.209	7.352***	0.85

참고: 모형적합도( $\chi^2=387.096$ ,  $df=206$ ,  $p=.000$ , TLI=.907, CFI=.922, RMSEA=.079)

### 5) 측정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 및 판별타당도

각 측정변인 간의 관계양상을 파악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각 변수들 간의 관계 정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며, 각 변인들의 유의수준은 .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들이 나타났다. 또한 평균분산추출치의 제곱근(square root of AVE) 수치가 그에 대응하는 상관계수들을 모두 상회하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판별타당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및 판별타당도 (N=187)

구분	양육부담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모역할만족도
양육부담	(.708)		
자녀와의 의사소통	-.231**	(.801)	
부모역할만족도	-.280**	.363**	(.777)

참고: 상관행렬에서 주대각선상의 괄호 안 수치들은 평균분산추출치의 제곱근을, 그리고 그 이외의 수치들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시각, 청각, 지적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이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구조구모형을 설계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AMOS 18.0을 이용하였다. 표본

의 일반적인 특성과 기술통계 및 정규성 확인,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검증을 위해서 SPSS 18.0을 이용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또한 결측치 처리는 본 연구의 결측자료의 유형은 주요 변수에 대해 1개 또는 2개 문항에 결측자료를 갖는 무작위 결측자료이기에 AMOS 프로그램의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배병렬, 2007).

## 4. 분석결과

### 1) 설문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설문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설문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N=187)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13	7.2	거주지역	서울	128	68.4		
	30대	77	42.8		경기도	11	5.9		
	40대	82	45.6		충북	18	9.6		
	50대	8	4.4		광주	15	8.0		
	평균	만 39.06 세			제주도	15	8.0		
교육수준	무학	18	9.9	자녀수	1명	86	46.5		
	초졸	22	12.2		2명	79	42.7		
	중졸	22	12.2		3명	17	9.2		
	고졸	85	47.0		4명	1	.5		
	전문대졸	13	7.2		5명	2	1.1		
	대졸	18	9.9		평균	1.67명			
	대학원졸이상	3	1.7	장애등급	1세-5세	47	26.3		
장애등급	1급	81	44.8		6세-10세	47	26.3		
	2급	70	38.7		11세-15세	41	22.9		
	3급	26	14.4		16세-20세	38	21.2		
	4급	1	0.6		21세-25세	6	3.4		
	5급	2	1.1		평균	10.66세			
	6급	1	0.6	장애가족	본인	125	68.7		
장애가족	배우자	33	18.1		둘째자녀 연령	1세-5세	33	35.1	
	자녀	12	6.6			6세-10세	19	20.2	
	기타	12	6.6			11세-15세	24	25.5	
		12	6.6			16세-20세	18	19.1	
	평균	9.31세		장애유형	시각	83	44.4		
장애유형	청각	64	34.2		셋째자녀 연령	1세-5세	7	38.9	
	지적	40	21.4			6세-10세	5	27.8	
		지적	40			21.4	11세-15세	5	27.8
			40			21.4	16세-20세	1	5.6
	평균	8.06세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보면, 40대가 82명(45.6%)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77명(42.8%), 20대(13명(7.2%)) 순이었고, 평균연령은 만 39.06세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85명(47.0%)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등급은 1급이 81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시각장애 83명(44.4%), 청각장애 64명(34.2%), 지적장애 40명(21.4%)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를 보면 자녀 1명이 86명(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2명 79명(42.7%)으로 나타났고, 평균 자녀수는 1.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보면 전체 68.4%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중 장애가 가장 심한 가구원으로 조사 응답자 본인이 125명(68.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배우자가 33명(18.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 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첫째 자녀연령 중 1세-5세와 6세-10세인 자녀들이 각 47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평균 10.66세였고, 둘째 자녀연령은 5세 이하가 33명(35.1%)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9.31세, 셋째자녀연령에서도 5세 이하가 7명(38.9%)으로 가장 많고 평균연령은 8.06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측정변인의 특성

본 연구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정규성검증으로 왜도, 첨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4>에서와 같다. 우선 양육부담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33점이었으며, 양육부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문항은 NB8(경제적 부담2)이 3.8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고, 가장 낮은 점수의 문항은 NB4(정서적 부담1)가 2.73점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문항에서는 4점 기준으로 C3(서로를 이해해줌)이 3.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C2(서로 의논)가 2.76점으로 의사소통 문항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 2.86점으로 자녀와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부모역할 만족에 있어서는 5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은 3.69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한 문항은 PS2(자녀는 기쁨의 원천)가 3.93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한 문항은 PS7(부모 되기는 즐거운 일)로 3.43점으로 나타났다. 왜도가 2보다 크거나 첨도가 7보다 큰 경우가 아니면 추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에 비해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의 왜도, 첨도는 모두 추정에 문제가 없는 값이 제시되고 있다(배명렬, 2007; 정은주, 2010; Kline, 1998).

〈표 4〉 측정변인의 특성

(n=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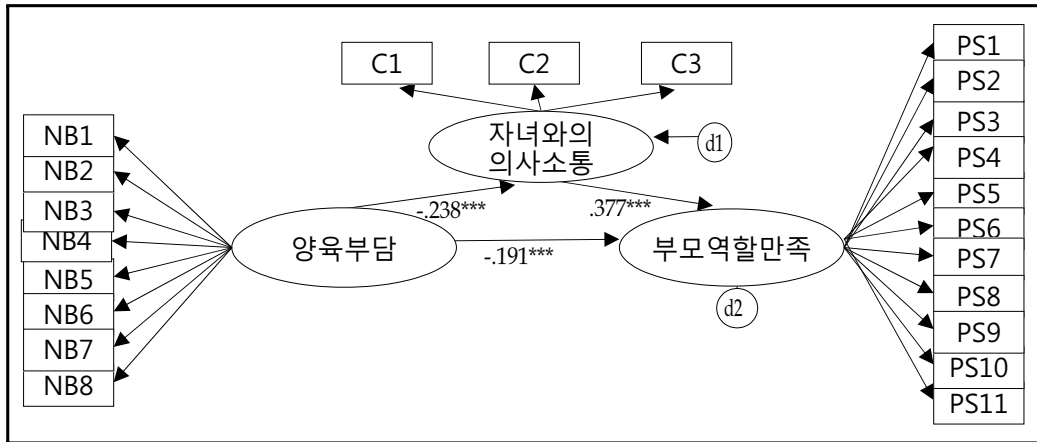
잠재변수	측정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양육 부담	육체적 부담	NB1	3.40	0.99	-0.28	-0.33
		NB2	3.34	1.16	-0.31	-0.74
	정서적 부담	NB3	3.20	1.13	-0.11	-0.79
		NB4	2.73	1.19	0.40	-0.81
	사회적 부담	NB5	2.97	1.24	0.10	-1.02
		NB6	3.30	1.16	-0.39	-0.83
	경제적 부담	NB7	3.78	1.01	-0.76	0.04
		NB8	3.89	0.98	-0.98	0.72
합계			3.33	0.80	-0.06	-0.27
의사 소통	귀 기울여 듣기	C1	2.82	0.64	-0.45	0.73
		C2	2.76	0.70	-0.58	0.58
	서로 이해	C3	3.00	0.59	-0.65	2.20
합계			2.86	0.56	-0.56	1.60
부모 역할 만족도	기꺼이 희생감수	PS1	3.88	0.86	-0.63	0.41
	자녀는 기쁨원천	PS2	3.93	0.79	-0.65	0.66
	부모로서 행복	PS3	3.67	0.88	-0.66	0.42
	자녀양육이 주된 목표	PS4	3.66	0.96	-0.42	-0.41
	자녀양육은 신이 남	PS5	3.52	0.93	-0.34	-0.44
	자녀와 있으려 노력	PS6	3.64	0.89	-0.39	-0.11
	부모 되기는 즐거운 일	PS7	3.43	0.94	-0.26	-0.28
	자녀생각은 즐거움	PS8	3.82	0.87	-0.47	0.10
	아이에게 말하기 좋아함	PS9	3.79	0.87	-0.52	0.20
	보살필 자녀가 있어 즐거움	PS10	3.64	0.87	-0.46	0.28
	자녀와 지내는 시간 좋음	PS11	3.64	0.83	-0.43	0.24
합계			3.69	0.69	-0.53	1.13

### 3) 가설검증

보통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는  $\chi^2$ , CFI, TLI, RMSEA가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바람직한 지수라 추천되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chi^2$ 의 값은 사례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CFI, TLI, RMSEA로 모형적합도를 평가한다(전선영·윤정혜·안정선, 2011; 홍세희, 2009; Fuemmeler et al., 2006). CFI, TLI는 .9 이상, RMSEA는 .05에서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지수의 기준으로 본 연구의 검증모형은  $\chi^2=409.033$ ,  $df=202$ ,  $p=.000$ , TLI=.906, CFI=.918, RMSEA=.074로, 이의 기준에 모두 부합되

는 적합도가 높은 구조방정식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측정변인의 표준화된 추정계수의 경우, 양육부담은 .621에서 .878의 계수값을 보였으며, 의사소통은 .7에서 .903까지, 부모역할만족도도 .634에서 .899까지의 계수값을 보이고 있고, 모든 변인의 계수값이  $p = .0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측정변인들은 모두  $p < .001$ 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각 개념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모형검증결과<sup>1)</sup>

### (1) 직접효과와 관련된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상정한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sup>2)</sup> 첫째, 양육부담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추정계수( $\beta$ ) 값이  $-.117$ 로,  $p < .05$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양육부담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또한 추정계수( $\beta$ ) 값이  $-.238$ ,  $p < .01$ 로 지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도 역시 지지되었다( $\beta = .377$ ,  $p = .000$ ). 따라서 직접효과 검증을 통해 가설 1, 가설 2, 가설 3은 모두 본 연구에서는 채택됨을 알 수 있다.

1) 참고: 구조모형에서 오차항은 생략하였음.

2) 본 연구에서는 제안모형에 따른 가설검증에 앞서 조사대상자가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변인 중 연구모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되는 조사대상의 장애유형, 교육수준, 연령, 자녀수를 통제변인으로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 회귀분석결과, 부모역할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통제변인만을 투입한 1차모형과 양육부담, 자녀의사소통을 모두 포함한 2차 모형 모두에서 어떠한 변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통제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한 후, 제안모형에 따른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 직접 효과와 관련된 가설 검증결과

구분	가설경로	비표준 경로계수	표준 경로계수	S.E.	C.R.	가설 수용 여부
가설1	양육부담 → 부모역할만족도	-.117	-.191	.049	-2.386**	지지
가설2	양육부담 → 자녀와의 의사소통	-.140	-.238	.050	-2.770**	지지
가설3	자녀와의 의사소통 → 부모역할만족도	.394	.377	.094	4.176***	지지

## (2) 매개효과와 관련된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2가지 방법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다(Sobel, 1982; Fuemmeler et al., 2006). 1단계로 각 변인들의 경로가 유의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이미 직접효과 검증에서 각 변인들과의 관계가 유의미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 변인의 추정계수는 .090로 Bootstrap을 통한 양측검증을 통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2단계에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Fuemmeler et al., 2006)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결과  $z = 2.328$ 로 기준치 1.96보다 높은 값으로  $p = .01$ 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를 매개한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었다.

〈표 6〉 매개효과 검증결과

구분	가설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obel Z	p	가설수용 여부
가설4	양육부담→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모역할만족도	-.191	-.090	.280	2.328	.01	지지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각, 청각,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와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부모로서 부모역할에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개념들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를 모형화하고 가설검증의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획득하였다.



첫째, 각 변인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부담은 5점 척도 기준으로 3.33점이고 특히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4점 기준은 2.86점, 부모역할만족도는 5점 기준으로 3.69점이었다.

둘째,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한 결과, 본 연구의 검증모형은  $\chi^2=409.033$ ,  $df=202$ ,  $p=.000$ , TLI=.906, CFI=.918, RMSEA=.074로 적합도가 높은 구조방정식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양육부담,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모역할만족도 변인에 대한 추정계수값 또한 .6이상으로 모두  $p<.001$ 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왔으므로 각 개념들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도의 기준치를 모두 넘는 우수한 모형으로 이론적 모형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양육부담,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모역할만족도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모형임이 입증되었다.

셋째, 양육부담은 부모역할만족도에 직접적인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yserman 외(2002), 김정진(2000), 신숙재와 정문자(1998), 황보영(2003), 홍승아(2007)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장애인이 양육부담을 느낄수록 부모역할만족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넷째, 양육부담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용석과 박명숙(2000), 오영희(1993), 이영준(2003), 이현지와 김우호(2011), Schrodt(2009)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양육부담이 클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이 많을수록 양육부담 때문에 자녀와 관계를 갖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서로간의 이해를 돕고 의논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부모역할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인혜와 정은희(2011), 임은자와 박애선(2012), Quitter 외(1990)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부모역할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양육부담과 부모역할만족도와의 관계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장애인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양육부담은 부모역할만족도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 양육부담 가운데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므로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수당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양육비용부담은 정부의 양육수당보조로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는 듯하나, 예산의 부족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양육비용의 부담은 가구의 구성과 가정경제 수준에 따라 개별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일괄적이고 획일화된 방식의 양육수당보조보다는 각 가정의 양육환경에 따라 양육비용부담의 내용을 명목별로 분류하여 욕구수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형태로 맞춤형 수당지급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양육자로서 여성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각 장애유형에 따라 다른 형태의 양육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각장애여성의 경우 말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자녀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정서적 돌봄부분에,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자녀와의 외부활동부분에, 지적여성장애인의 경우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나 자녀양육에 따른 정보획득부분에

부담이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은주, 김정희, 2012). 이러한 각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인가족지원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할 때 그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양육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같이, 응답자의 가족 구성은 부부 모두 장애인인 경우와 1급 장애등급이 많았고, 평균 자녀수도 1.67명으로 나타나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평균 자녀수 1.23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3명 이상의 자녀도 조사대상의 1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성을 가진 장애가족의 가구사향을 단순히 각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다수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가족과 다자녀 가족 지원 등 보다 장애가정 특성에 맞는 특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부모역할만족도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자녀와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대화가 가능할 때 효과적이다. 장애인 부모의 경우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평적 대화 관계 형성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교육이 필수적이다. 즉, 장애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각각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사정(부모의 장애 유형 : 시각, 청각, 지적 등)과 자녀의 상태(장애여부, 나이, 성격 등)를 고려하여 기능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적 도움이 가능한 의사소통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가족관계 인식도가 좋은 편이었고 부모역할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장애로 인한 양육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원만하고 부모 됨으로 인한 기쁨과 자녀와 함께 함으로써 오는 행복감이 크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강점을 찾아 강점관점의 시각으로 가족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의 양육부담과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있었으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이론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들의 관계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학문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부모와 그들 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두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게 일정정도의 방향을 제시하여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고성혜, 198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18: 21-37.
- 권경숙, 2008,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어머니들의 양육특성과 어려움에 관한 질적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29-255.
- 김미애, 1997,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체계 특성과 청소년의 성격특성”,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진·양정빈, 2011, “결혼한 여성지체장애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생애사적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16(3): 35-62.
- 김용석·박명숙, 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 김정진, 2000, “정신장애여성의 양육관련 변인과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연구: 임상적으로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어머니와 일반 어머니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정희·정은주·최선희, 2011, 『여성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연구 - 시각, 청각, 지적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및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개발원.
- 남연희, 2001, “사회적 지원체계를 활용한 정신지체아 양육부담경감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원, 7(3): 547-575.
- 노지영·황혜신, 201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0-3세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27-40.
- 문혁준, 2001,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05-219.
- 박길진, 2007,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양육부담과 출산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성옥·강영자, 1997, “부모역할 중요도와 수행의 어려움 및 자신감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한국영유아보육학』, 11: 159-178.
- 박현숙, 2008,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자살·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8(4): 513-521.
- 박현숙·구현영,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완충효과”,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18(1): 87-94.
- 박화윤·김선혜·이성희, 2007, “부모역할지능과 어머니의 개인 및 양육관련변인, 자녀교육 및 가정-학교 협력에 대한 신념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48: 85-101.
- 박화윤·최재숙·마지순, 2009, “부모역할, 자녀양육과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아동학회지』, 22(5): 65-76.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변용찬·김성희·윤상용·강민희·최미영·손창균·오혜경, 2009,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연숙·김영주, 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신숙재·정문자, 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양숙미·이은미·전혜연, 2010,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매뉴얼 개발 - 시각·청각·지적장애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엄미선·전동일, 2006,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지지”, 『사회복지리뷰』, 11: 75-108.
- 오가실, 1997, “사회적 지지모임이 발달지연아 어머니의 부담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 27(2): 389-400.
- 오영희, 1993, “2세 유아를 위한 가정방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집』, 1: 319-344.
- 오인혜·정은희, 2011,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3): 409-435.
- 유영준, 2007, “가족중심실천의 구성요인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리뷰』, 12: 83-103.
- 유주희·이정우, 1993, “한국도시부부의 의사소통이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연구』, 3(12): 199-242.
- 이갑숙·손신현, 2008, “여성장애인의 양육여건 실태조사”, 『공공행정연구』, 9(1): 125-143.
- 이미혜, 2004, “농아인가족의 의사소통과 자녀역할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순형·길애진, 1999, “한국 청소년과 재미교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자녀간 의사 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39-248.
- 이영미·민하영·이윤주, 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3-62.
- 이영준, 2003,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와 어머니의 우울증,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4(2): 218-228.
- 이용복·김정희·이승기·양숙미·이미정·김경란·이선화·이진숙·전혜연, 2010, 『중증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연구-중증장애인 부부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 이윤정·조근호,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사회적 지지와 부모 역할 만족도와의 관계”, 『인간이해』, 23: 99-122.
- 이지원, 2003,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2): 207-216.
- 이학식·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법문사.
- 이현지·김우호, 2011, “장애청소년 부모의 양육부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5(3): 131-153.
- 임은자, 2011, “지체장애여성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은자·박애선, 2012, “지체장애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6(4): 67-90.
- 임주희·최연실, 2006,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부모갈등, 부모관련 스트레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영향”, 『아동학회지』, 27(4): 233-246.
- 전선영·윤정혜·안정선, 201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회복지교육성과와 직무성과와의 관계: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1): 291-316.
- 전우경, 2001, “초산부 어머니 역할 이미지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6(1): 147-171.
- 정은주, 201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가족중심실천: 영향요인 파악을 위한 다층모형 활용”,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은주·김정희, 2012,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비교를 통한 가

- 족지원전략" 『유아특수교육』, 12(1): 165-190.
- 최복천·곽지영·노혜진, 2009,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현온강, 1994,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련 변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현온강·조복희, 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5.
- 홍세희, 2009,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시리즈』, S & M 리서치그룹.
- 홍승아·이상원·이영미, 2007,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이영미, 2009,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지원방안 - 아동기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8(1): 119-158.
- 황보영, 2003, "여성정신질환자의 자녀양육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Ainsworth, M. D. S. 198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ist*, 34: 932-937.
- Baker, B. L., McIntyre, L. L., Blacher, J., Crnic, K., Edelbrock, C., and Low, C., 2003, "Pre-school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 Behaviour Problems and Parenting Stress Over Tim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7(4/5): 17-230.
- Becker, W. C., 1964,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ew York: Russell Sage.
- Duke, H. D., Rose, H. A., and Halverson, C. F., 1997, *Predictors of Parenting Satisfaction*, Paper Presented at 58th NCFR.
- Fuemmeler, B. F., Masse, L. C., Yaroch, A. L., Resnicow, K., Campbell, M. K., Carr, C., Williams, A., 2006, "Psychosocial Mediation of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in The Body and Soul Effectiveness Trial", *Health Psychology*, 25: 74-483.
- Guidubaldi, J., and Cleminshaw, H. K., 1985, "The Development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4(4): 293-298.
- Hassall, R., Rose, J., and McDonald, J., 2005,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The Effects of Parental Cognitions in Relation to Child Characteristics and Family Suppor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6): 405-418.
- Hawkins, J. L., Weisberg, C., and Ray, D. W., 1980, "Spous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3): 585-593.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Mash, E. J., and Johnston, C., 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313-338.
- Menaghan, E. G., 1983, "Marital Stress and Family Transitions: A Pan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71-386.
- Oyserman, D., Bybee, D., Mowbray, C. T., and MacFarlane, P., 2002, "Positive Parenting among African American Mothers with a Serious Mental Ill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1): 65-77.
- Quitter, A. L., Glueckauf, R., and Jackson, D. N., 1990, "Chronic Parenting Stress: Moderating versus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1266-1278.
- Russell, C. S., 1974, "Transition to Parenthood: Problems and Gratific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2): 294-302.

Schrodt, P., 2009, "Family Strength and Satisfaction as Functions of Family Communication Environments", *Communication Quarterly*, 57(2): 171-186.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290-312, in *Leinhardt, S.,(Ed.), Sociological Methodology*,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Zemencuk, J., and Rogosch, F. A., 1995, "The Seriously Mentally Ill Women in the Role of Parent : Characteristics, Parenting Sensitivity, and Need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18(3): 77-93.

## Cor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Disabled Females with Mental, Visual and Hearing Disability in Raising Children :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Jeon, Sunyoung**

(Yong In University)

**Lee, Seonggyu**

(University of Seoul)

**Jung, Eunjue**

(Seoul Women's University)

**Kim, Junghee**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This research seeks to clarify cor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visually impaired, hearing impaired and mentally disabled mothers and their burden of raising their children and whether communication between their children mediates their relationship. This research tries to set a standard performing method to alleviate burden of raising children and devise an effective parenting method. The study was done in cooperation with 13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in the Seoul area,<sup>23</sup> and performed 3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Hearing impaired person had answered by themselves, and visually impaired were provided with disability aid, by reading the questionnaire to them. 210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187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Analysis showed that burden of fostering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as a mother and availability for communication. Moreover, communication with the children were shown to mediate the satisfaction as a parent and burden of raising the children. Thus, the goal is to reduce the burden of fostering for female disabled and increase their satisfaction as a parent as well as enhancing their communicational skills.

**Key words:** disabled women, parenting burden, parental satisfaction, parent-child communication

[논문 접수일 : 14. 07. 08, 심사일 : 14. 07. 17, 게재 확정일 : 14. 08. 15]